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

박순진¹, 백진아^{2*}

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²한세대학교 간호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on Their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Attitude

Soon-Jin Park¹, Jina Paik^{2*}

¹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7차(2017)년도 데이터에서 1,079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조방정식과 Bootstapping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서 검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진로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키워드 : 다문화청소년, 우울, 학교생활적응, 진로태도, 삶의만족도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attitude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e purpose, 1079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7th (2017) data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and the data collected were verified through analysis methods such as structural equation and Bootstrapping analysis. The results founded are as follows. First, the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shown to decrease their life satisfaction. Second, school adjustment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rd, the effect of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the life satisfaction was partly mediated by their career attitude.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practical programs and policy alternative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discussed.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Career Attitude, Life Satisfaction

*This article is excerpted from and revised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Soonjin Park(2021).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hanafos.com)

Received September 11, 2021

Revised October 13,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본격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민자나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상이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의 46,954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숫자이다[1]. 다문화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상이한 문화적 특성과 가정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는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따돌림이나, 편견 등의 차별적 인식에 직면하여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3]. 실제 청소년의 행복감을 비교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의 행복감(3.06점)이 비다문화청소년(3.38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은 7점 만점에 5.32점으로 비다문화청소년의 5.9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5].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는 인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 통합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의 삶에 대한 열정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당면한 사회, 경제적 결핍이나 문제에 집중되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6]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환경 부적응이나 결핍의 관점에서 벗어나 삶의 주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청소년의 긍정적인 심리 발전과 실제 현장에서의 사회통합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7] 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관심을 갖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 요인 중의 하나는 우울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경험이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훨씬 다양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우울감도 더 높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차별이나 학교 폭력과 같은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우울감[8,9]이나 두려움,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다수의 연구를 통해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우울이나 스트레스, 불안의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3,14]. 이처럼 높은 수준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우울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Cho et al.[15]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 집단에서도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고 관련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들이 축적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울감은 청소년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 평가뿐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논의된다[16]. 청소년의 심리적인 장애나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 [17,18]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고, 학업성적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19].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서 청소년기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지속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20]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많은 다문화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에서 언어 문제나 집단따돌림, 사회적 소외감 등의 차별과 학교생활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은 정서적 위해요인인 우울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울

감으로 인해 낮아지고 어려워진 학교생활적응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2],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심리적인 만족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최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24,25]를 일부 살펴볼 수 있으나,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우울감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시도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과거 한국어 습득이나 학습능력이 집중된[26] 학업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진로태도이다. 진로태도는 진학여부와 전공 선택, 기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직업선택의 확신 여부 등 학생들의 학업 및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27]. 청소년 시기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진로태도를 갖추었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과 꿈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을 뜻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청소년의 진로발달 수준과 진로정체감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련을 맺거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29]. 진로태도는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30-32],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인 좌절감에 빠지는 우울감도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33,34], 따라서 향후 미래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삶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비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우울감과 진로태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반적

으로 다문화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청소년에 비해 직업 의식이나 진로발달이 낮고, 진로결정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33,34]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삶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특히,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가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확고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진로태도를 정립하고 학업성취나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과 같은 학교생활적응도 모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제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문제 3]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진로태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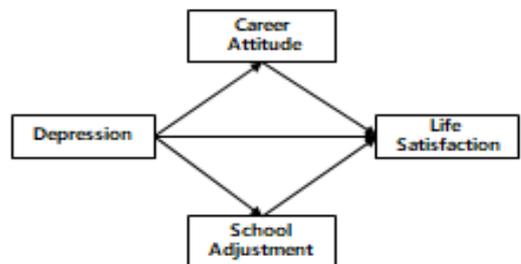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중 2017년 7차년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는 다문화청소년 1,2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1,079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변수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 학교생활적응, 진로태도 및 삶의 만족도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우울감, 진로태도 및 삶의 만족도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생활적응 변수 문항만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2.3.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Kim et al.[35]가 개발하여 Kim et al.[36]가 수정·보완한 것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질문문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문항 총합의 평균값으로 삶의 만족도라는 잠재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삶의 만족도 측정에 활용된 문항들의 신뢰도인 Chronbach's α 값은 .77로 나타났다.

2.3.2 우울감

우울감은 Kim et al.[37]이 개발한 문항 중, 우울한 정도와 관계된 항목에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활용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우울감의 질문문항은 '나는 울기를 잘함'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우울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2.3.3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업 영역,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연관된 내용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업 영역은 Kim[38]이 개발한 척도 문항 중에서 4문항을 발췌하고, 교우관계는 Hang & Kim[39]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다문화패널 연구진이 추가하여 4문항으로 만들어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Min[40]이 수정·보완한 것을 Jeong[41]이 재수정·보완한 3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구성은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줌' 등 전체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 변수의 Chronbach's α 값은 .90이다.

2.3.4 진로태도

진로태도 척도는 Lim & Han[42]이 개발한 문항 중에서 진로태도 결정성과 준비성 각각 4문항을 발췌하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질문문항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움' 등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타당도가 0.4보다 낮은 문항인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음'과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음'을 제외한 최종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진로태도 값이 높을수록 향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한 결정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태도 변수의 Chronbach's α 값은 .72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각 변인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학교생활적응, 진로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학교생활적응, 진로태도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0.0%로 같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7.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졸 이상은 41.7%, 중졸 이하는 10.6%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보면, 일본이 3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필리핀이 27.2%, 중국(한족, 조선족, 기타)은 25.2%, 기타(베트남, 태국, 기타)는 11.4%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59.6%), 만족하는 학생은 40.4%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희망교육 수준은 대다수 학생(78.0%)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희망하고 고등학교 이하는 22.0%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1,079)

Variable	Section	N	%
Gender	Male	539	50.0
	Female	540	50.0
Mother's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114	10.6
	High school graduated	515	47.7
	Higher than university	450	41.7
Mother's Nation	China	272	25.2
	Japan	390	36.1
	Philippines	294	27.2
	Other (Vietnam, Thailand etc.)	123	11.4
Grade Satisfaction	Satisfied	436	40.4
	Satisfied not at all	643	59.6
Expected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37	22.0
	Higher than university	842	78.0

3.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Table 2 참조), 우울감의 평균값=1.73, 표준편차=.55,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3.77, 표준편차= .59, 진로태도의 평균값= 2.82, 표준편차=.53,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2.89, 표준편차=.53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가장 높은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이고 가장 낮은 변수는 우울감이다. 각 변수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①	1.00	3.80	1.73	.55	.35	-.39
②	1.36	5.00	3.77	.59	-.22	.18
③	1.33	4.00	2.82	.53	.14	-.26
④	1.00	4.00	2.89	.53	.12	.49

① Depression ② School Adjustment
③ Career Attitude ④ Life Satisfaction

3.3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하고자 하는 도구 간 상관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Table 3 참조), 우울감은 학교생활적응($r=-.45, p<.01$), 진로태도($r=-.26, p<.01$), 삶의 만족도($r=-.60, p<.01$)와 모두 부(-)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r=.38, p<.01$) 및 진로태도 ($r=.37, p<.01$)와 정(+)적인 상관도를 보이고 있으며, 진로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도($r=.27, p<.01$)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①	1			
②	-.45**	1		
③	-.26**	.37**	1	
④	-.60**	.38**	.27**	1

** $p<.01$, ① Depression ② School Adjustment
③ Career Attitude ④ Life Satisfaction

3.4 연구모델의 분석결과

3.4.1 측정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을 실제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본 연구의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 학교생활 적응, 진로태도,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관측변수들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5124.11, df=399, p=.000, SRMR=.08, RMSEA=.11, CFI=.75, TLI=.73$ 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가 적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를 상향하기 위해 집중타당도가 다소 낮은 변수(반올림하여 B(0.5)와 SMC의 값이 0.5보다 낮은 변수를 삭제하고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유의도가 유의수준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었고, 적합도 지수와 개념 및 판별 타당도가 적합한 수정 측정모형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어, 이후 경로를 분석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정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수치는 $\chi^2=972.01$, $df=129$, $p=.000$, $SRMR=.05$, $RMSEA=.08$, $CFI=.93$, $TLI=.91$ 등의 값을 보여주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Index	χ^2	df	p	SRMR	RMSEA	CFI	TLI
Initial Model	5124.11	399	.000	.08	.11	.75	.73
Modified Model	972.01	129	.000	.05	.08	.93	.91

3.4.2 측정모형의 타당성

본 연구에 적용할 변인들의 단일 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적합지수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타당도는 주로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 타당도의 값으로 판단하는데 집중타당도(개념 신뢰도)는 분석한 값이 0.7보다 크고 판별타당도의 경우 분석 값이 0.5보다 크면 적합한 것으로 설명된다.

< 개념 신뢰도 공식 >

$$\text{개념 신뢰도} = \frac{(\sum \text{표준화추정치})^2}{(\sum \text{표준화추정치})^2 + \sum \text{측정오차}}$$

먼저, 진로태도 변수의 개념 신뢰도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진로태도} &= \frac{(0.744 + 0.746 + 0.607 + 0.787)^2}{(0.744 + 0.746 + 0.607 + 0.787)^2 + (0.334 + 0.290 + 0.397 + 0.290)} \\ &= \frac{8.317}{9.628} = 0.86 \end{aligned}$$

진로태도의 개념 신뢰도 값은 0.86로 기준값이 0.70보다 크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은 0.93, 우울감은 0.95, 삶의 만족도는 0.93의 값을 보여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판별타당성 평가 방법은 평균분산추출(AVE)값을 구해, 그 값이 0.5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평균분산추출(AVE)값 공식 >

$$AVE = \frac{\sum (\text{표준화추정치})^2}{n}, \quad n = \text{관측변수의 수}$$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태도의 평균분산추출값을 구한 결과 0.53의 값을 보여 0.5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변수들도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우울감은 0.59, 학교생활적응은 0.65, 삶의 만족도는 0.69의 값을 보여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begin{aligned} \text{진로태도} &= \frac{(0.744)^2 + (0.746)^2 + (0.607)^2 + (0.787)^2}{4} \\ &= 0.525 \end{aligned}$$

이와 함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근거로 잠재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행렬과 개념신뢰도 및 AVE 값을 Table 5에 나열하였다. 그 결과 각 잠재변수의 개념신뢰도 값이 0.7보다 크고 AVE 값도 0.5보다 크게 나타나 타당도를 확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각 변수들의 개념상관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변수와 진로태도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이 가장 낮고 우울감 변수와 삶의 만족도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Table 5. Correlation among Latent Variables

Construct	Construct Coefficient					
	convergent validity	AVE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Career Attitude	Life Satisfaction
①	.95	.59	1			
②	.93	.65	-.46**	1		
③	.86	.53	-.37**	.28**	1	
④	.93	.69	-.69**	.45**	.37**	1

** p<.01, ① Depression ② School Adjustment ③ Career Attitude ④ Life Satisfaction

3.4.3 구조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적합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구조모형을 적용해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 및 Fig. 2로 제시하였다. 먼저 구조모형 분석에서 표준오차와 모수 추정치를 확인한 후,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파악하였다. χ^2 검정과 SRMR, RMSEA, CFI 및 TLI 지수와 함께 지수의 적합도를 함께 살펴본 결과, $\chi^2=984.87$, $df=130$, $p=.000$, SRMR=.05, RMSEA=.08, CFI=.93, TLI=.91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의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beta=-.57(t=-14.46, p<.001)$ 만큼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beta=.16(t=4.94, p<.001)$ 만큼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진로태도도 삶의 만족도에 $\beta=.11(t=3.51, p<.001)$ 만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우울감은 학교생활적응에 $\beta=-.47(t=-13.85, p<.001)$ 만큼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감이 높으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우울감은 진로태도에 $\beta=-.39(t=-10.28, p<.001)$ 만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이 높은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명확한 진로태도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우울감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 및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각각 21.9%, 14.3%, 50.4%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분석결과와 추정된 주요 변인 간의 경로계수는 Fig. 2와 같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울감과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태도 변인 모두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Table 6. Estimated Model

Variable	B	β	S.D	C.R.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56***	-.57	.04	-14.46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12***	.16	.02	4.94
Career Attitude→ Life Satisfaction	.09***	.11	.02	3.51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59***	-.47	.04	-13.85
Depression→ Career Attitude	-.48***	-.38	.05	-10.28
School Adjustment R ²	.219			
Career Attitude R ²	.143			
Life Satisfaction R ²	.50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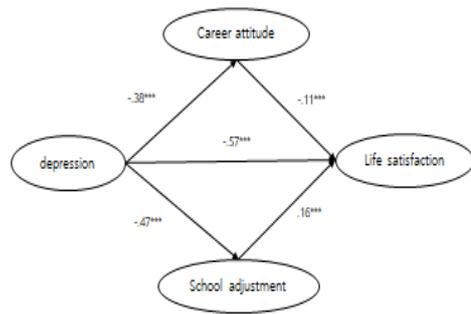


Fig. 2. Amos Test of Proposed Model

3.4.4 효과분해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의 총 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7, Table 8과 같다. 효과분해는 각 잠재변인의 비표준화계수 값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값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감은 학교생활적응에 $\beta=-.48(p<.05)$,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beta=.12(p<.05)$ 의 직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beta=-.56(p<.05)$ 의 직접효과가 있고, $\beta=-.06(p<.05)$ 의 간접효과와 $\beta=-.61(p<.05)$ 의 총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학교생활적응 변수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7.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between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Depression	→ School Adjustment	-.48*	-.48*	
School Adjustment	→ Life Satisfaction	.12*	.12*	
Depression	→ School Adjustment → Life Satisfaction	-.61*	-.56*	-.06*

*p<.05

Table 8.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between Depression, Career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Depression	→ Career Attitude	-.48*	-.48*	
Career Attitude	→ Life Satisfaction	.09*	.09*	
Depression	→ Career Attitude → Life Satisfaction	-.60*	-.56*	-.04*

*p<.05

둘째, 우울감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에 $\beta = -.48(p<.05)$. 진로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beta = .09(p<.05)$ 의 직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서 진로태도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beta = -.56(p<.05)$ 의 직접효과가 있고, $\beta = -.04(p<.05)$ 의 간접효과와 $\beta = -.60(p<.05)$ 의 총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진로태도 변수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태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감, 삶의 만족도 변수 간의 관계에서 높은 우울감이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고 발표한 선행연구 결과[15]와 유사하다. 특히,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비교한 선행연구[43,44]에서 비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다문화청소년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이 우울감으로 인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감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낮추는 요인임을 주장한 선행연구[45]와 교우관계, 학업 및 교사관계에 적응을 잘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 Kim et al.[4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울 감소와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함께 고려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태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은 다문화청소년의 부정적인 진로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낮아진 진로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47]과도 유사하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및 진로발달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28,29,33]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원방안을 설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이나 진로발달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교육·정서·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실천적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나 좌절감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더욱 활발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문제에 대해 가정이나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조기 개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진로지도·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이들의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 선택, 계획, 결정 등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이 각각도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 교육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미래 진로 준비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도와 상담 과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의식의 발전을 방해하는 진로장벽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별/집단 상담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진로 교육적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각 지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진로교육센터 간의 연계 협력 구축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및 통합적 관점을 둔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과 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이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학업 영역 부분 교육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이 학습에 대해 좀 더 목표지향적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수준별 학습지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정 내 학습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 교사 관계와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이 교사를 신뢰하고 학교 현장 내 다문화학생-교사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 간의 현실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또래관계 촉진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다문화청소년에게는 다문화 인식개선과 문화적 민감성 및 다양성 함양과 같은 교육을 시행해 다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문화적 민감성을 갖고, 이중적 차별을 지양하는 관점에서 논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특정 다문화청소년 집단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다문화청소년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주요하게 차이나는 발달적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하여 각 단계별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은 하나의 통일된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복합적 집단군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집단으로 분석했다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 대상인 국제결혼 자녀뿐 아니라 탈북청소년,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등과 같이 각각의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개별집단에 초점을 두고 독립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정된 변수간의 구조방정식의 모형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나,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외생변수와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데 있어 비다문화청소년과의 차별적인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2017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시점의 변인을 분석한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우울감, 학교생활적응, 진로태도는 학생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특정 시기에 국한된 횡단 연구가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

을 파악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통해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과정에서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간의 차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 학교생활적응, 진로태도, 삶의 만족도의 추이를 연구하는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2020 Basic Education Statistics Highlights』, Sejo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 [2] M. S. Kim, S. K. Kim, S. Y. Yoon & S. H. Kim. (2010). How to Increase Support for the Socially Vulnerable: Children, the Disabled and Multi-cultural Famili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66(0), 63-79.
- [3] J. Y. Lee & G. H. Chung. (2016).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and Coping Strategies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3), 336-362. DOI : 10.15709/hswr.2016.36.3.336
- [4] H. J. Kim & K. T. Park. (2010).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Need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Youth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Normal Family Yout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49(1), 93-128.
- [5] H. Y. Paik & H. A. Kang. (2019).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Non-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on Their Career Maturit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7), 155-187. DOI : 10.20993/jSSW.47.6
- [6] H. Y. In. (2017).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4(10), 459-482. DOI : 10.21509/KJYS.2017.10.24.10.459
- [7] P. H. Kim & H. M. Yoon. (2020).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in Mediation on Self-esteem: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7(1), 25-53. DOI : 10.21509/KJYS.2020.01.27.01.25
- [8] J. M. Kim et al. (2015).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s' Mental Health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nd Monocultural Family in Korea,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4), 279-287. UCI : G704-001951.2015.26.4.004
- [9] I. Y. Ahn et al. (2016).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Monocultural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4), 306-311. DOI : 10.5765/jkacap.2016.27.4.306
- [10] A. L. Whaley & K. Francis. (2006). Behavioral Health in Multiracial Adolescents: The Role of Hispanic/Latino Ethnicity. *Public Health Reports*, 121(2), 169-174.
- [11] W. Kim. (2017).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Research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Sogang University*, (46), 383-422.
- [12] M. S. Jeon & T. K. Kim. (2018). The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s of Self-Identity-.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6(1), 123-132.
- [13] N. J. Kim & Y. S. Lim. (2012). The Verification Of Intervening Effect Of Youth Ac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9(8), 219-240. UCI : G704-000387.2012.19.8.004
- [14] I. Daig, P. Herschbach, A. Lehmann, N. Knoll & O. Decker. (2009).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 and the Impact of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A General Population Survey from Germany. *Quality of Life Research*, 18(6), 669-678. DOI : 10.1007/s11136-009-9481-3
- [15] Y. S. Jo, Y. I. Cho & S. J. Park. (2020).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sia Culture Academy of Incorporated Association*, 11(3), 1991-2006.
- [16] J. A. Yu & W. J. Kim. (2018).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9(3), 241-273. DOI : 10.14816/sky.2018.29.3.241
- [17] S. A. Fröjd, E. S. Nissinen, M. U. I. Pelkonen, M. J. Marttunen, A. M. Koivisto & R. Kaltiala-Heino. (2008). Depression and School Performance in Middle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 Adolescence*, 31(4), 485-498.
DOI : 10.1016/j.adolescence.2007.08.006
- [18] K. Finning et al.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and Poor Attendance at Achool: A A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5, 928-938. DOI : 10.1016/j.jad.2018.11.055
- [19] J. B. Choi, I. H. Kwak, S. H. Lee, J. H. Choi & S. M. Cho.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Related Adjutment.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0(9), 1144-1151.
- [20] J. Y. Lee & K. A. Lee. (2004).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2), 261-276. UCI : G704-000523.2004.16.2.007
- [21] J. S. Park. H. J. Ahn & T. Y. Jung. (2013). Life-Stress Fac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Its Influence on Their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Parent-Child Relations, and Peer Relations, Stress (KSSM)*, 21(1), 51-60. UCI : G704-002182.2013.21.1.003
- [22] E. H. Kim, J. E. Seo & C. R. Nho. (2019). A Longitudinal Study of Caus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Parenteral Supervision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21(2), 97-121. DOI : 10.19034/KAYW.2019.21.2.04
- [23] H. Y. Min & K. N. Kwon. (2004). The Second Adjustment of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Ego-Identity and Preceptions of Parenting Behaviors. *Korean Associataion of Child Studies*, 25(2), 81-92. UCI : G704-000080.2004.25.2.007
- [24] J. H. Kim. (2019).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ed by Depression and Self-esteem.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7(3), 115-124.
- [25] S. L. Choi & H. J. Lee. (202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Ecological System Approach.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5(2), 149-157.
- [26] J. H. Kim. (2019). The Effects of School Career Education Activities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Focusing on Multicultural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KAME)*, 12(1), 111-146.
DOI : 10.14328/MES.2019.3.31.111
- [27] E. M. Lim & S. S. Jang. (2004). The Immediate and Continuous Effects of Career Information Exploration Program Using Internet.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18(4), 139-154. UCI : G704-000199.2004.18.4.008
- [28] B. E. Kang, E. B. Kim & J. S. Kim. (2017).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dentity on the Relation between Study Habi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Teacher Education Research (TER)*, 56(1), 94-106.
DOI : 10.15812/ter.56.1.201703.94
- [29] H. J. Seo & M. H. Yoon. (2018). Effects of Career Identity on Life Satisfaction of Youth Expected to Graduate from Middle and High School: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chool Life Adaptation.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CNUJES)*, 39(1), 71-98.
DOI : 10.18612/cnujes.2018.39.1.71
- [30] B. Yoo & K. H. Kim. (2015). The Factors Affecting Vocational Identity : Comparing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and Non-Immigrant Adolescents(Korean Parents Fami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1), 5-29.
DOI : 10.20970/kasw.2015.67.1.001
- [31] H. S. Jeon, J. Y. Kim & J. S. Jeon. (2019). Factors Associated with Career Decision Making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6(10), 259-290.
DOI : 10.21509/KJYS.2019.10.26.10.259
- [32] E. Vignoli. (2015).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Exploration among Older French Adolescents: The Specific Role of General Trait Anxiety and Future School and Career Anxie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9, 182-191.
DOI : 10.1016/j.jvb.2015.06.005
- [33] J. H. Ahn, Y. D. Yoon & H. S. Lim. (2016). The Life Satisfactio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2), 197-208.
DOI : 10.14400/JDC.2016.14.2.197
- [34] H. J. Seo & M. H. Yoon. (2018). Effects of Career Identity on Life Satisfaction of youth expected to graduate from Middle and High School: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chool Life Adaptation.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CNUJES)*, 39(1), 71-98. DOI : 10.18612/cnujes.2018.39.1.71
- [35] S. Y. Kim, J. Y. Lim, S. O. Kim, S. H. Park, S. L. Yoo, J. Y. Choi & G. Y. Kee. (2006). 『Korea Adolescent Development Indicator Survey I:

- Verification of Result Part Measure Indicators.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36] J. K. Kim, H. J. Paik, H. J. Lim & G. O. Lee. (2010).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37] G. I. Kim, J. H. Kim & H. T. Won. (1984). *Summary of Simple Psychiatric Examination*. Seoul: Central Appropriateness Research Institute.
- [38] J. N. Kim.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Short For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3), 497-517. UCI : G704-000523.2013.25.3.003
- [39] Y. J. Hwang & K. K. Kim. (2006). Determinants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General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3), 181-203. UCI : G704-001276.2006.16.3.016
- [40] B. S. Min. (1991). *The Effect of School Adaptation and Self-Concept on Academic Performanc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Seoul.
- [41] H. S. Jung. (2009).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Mother and School Life Adjustmen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s Optimism*.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Yongin.
- [42] K. H. Lee & J. C. Han. (1997). Tools for the Feasibility of Career Attitude Measurement Too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8, 219-255.
- [43] M. O. Chae. (2018). Subjective Health Status, Mental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Compared to General Famil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2), 383-393. DOI : 10.14400/JDC.2018.16.12.383
- [44] H. S. Jang & H. J. Park. (2019).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between Non-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2(1), 10-19.
- [45] N. M. Hong & H. J. Park.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8(2), 125-151. DOI : 10.22836/kaswpr.2017.8.2.125
- [46] E. H. Kim, CUI LINA & C. R. Nho. (2019). Effects of Family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y and School Adjustment and Multiple Group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8, 87-114. DOI : 10.24300/jkscw.2019.12.68.87

- [47] H. J. Shin & M. H. Lee. (2011).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on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Effect on Stress, Aggressio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139-161.

박 순 진(Soon-Jin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문학사)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상담학석사)
- 2021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21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가족상담/복지
- E-Mail : sj5114@hanmail.ne

백 진 아(Jina Paik)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현재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